

‘이기형 아들’ 이호재, 첫 태극마크… 부자 국가대표 4호 탄생

동아시아컵 축구대표팀 명단 발탁을 시즌 K리그 1도움 기록 중 이호재 “대표팀은 증명하는 자리”



과거 ‘캐논 슈터’라는 별명으로 이름을 날렸던 이기형 엔넨(중국) 감독의 아들 이호재(포항 스틸러스)가 생애 처음 태극마크를 달았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7월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안컵)에 출전할 남자 축구대표팀 명단을 23일 발표했다.

동아시아컵은 국제축구연맹(FIFA)이 정한 A매치 기간에 열리는 대회이다. 따라서 축구대표팀 명단 23명 중 20명이 프로축구 K리그 선수들로 구성됐다.

이 과정에서 이호재가 흥명보 감독 마음을 사로잡아 생애 처음 축구대표팀에 발탁됐다.

2000년생 스트라이커 이호재는 선수 시절 수원 삼성, 성남 일화(현 성남FC), FC 서울, 오슬랜드 시티(뉴질랜드)에서 뛰었고, A매치 통산 47경기를 소화한 이기형 감독의 아들이다.

이호재는 인천 대건고와 고려대를 거치며 성장했지만 축구대표팀과는 인연이 없었다.

지난 2021년 포항에 입단한 이호재는 프로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드러냈다.

2023시즌에는 8골 1도움, 2024시즌에는 발목 부상에도 불구하고 9골 5도움을 기록하며 결정력을 뽐냈다.

올 시즌도 마찬가지다. 이호재는 하나은행 K리그 1 2025 19라운드 현재까지 9

개의 공격포인트(8골 1도움)를 쌓았다.

여러 강점 중 이기형 감독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슈팅 능력이 돋보이는 스트라이커다.

그런 이호재가 국가대표로 발탁돼 동아시아안컵 무대를 누리게 됐다.

이번 이호재의 발탁은 한국 축구계에도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고 김찬기-김석원, 차범근 전 감독-차두리, 이을용 경남FC 감독-이태석(포항)에 이어 한국 축구 통산 4번째 부자 국가

대표가 탄생했다.

포항에 따르면 이호재는 “어렸을 때부터 축구 선수로서 항상 꿈꿔왔던 국가대표팀에 뽑혀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대표팀은 증명해야 하는 자리”라며 “책임감과 국가대표 선수라는 자부심을 갖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했다.

이호재는 오는 2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서울과의 리그 20라운드 원정

경기 이후 흥명보호에 합류할 예정이다.

한편 남자 축구대표팀은 국내에서 개최될 이번 동아시아안컵에서 3년 만의 우승에 도전한다.

한국은 2015년, 2017년, 2019년에 3회 연속 우승을 달성했으나, 지난 2022년 일본에 밀려 준우승에 그쳤다.

이와 함께 흥 감독은 2026 북중미월드컵에 동행할 국내파 육성 가리기까지 함께 진행한다.

/뉴시스

아시아, 클럽월드컵서 줄줄이 조기 탈락

울산·우라와·알아인, 2연패로 16강 무산
‘탈아시아급 전력’ 알힐랄만이 2무 기록

아시아축구연맹(AFC) 소속 팀들이 올해 대륙 개편된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에서 잇따라 조기 탈락하며 아쉬움을 삼켰다.

이번 대회 AFC에서는 프로축구 K리그 1 울산 HD와 함께 우라와 레즈(일본), 알아인(아랍에미리트), 알힐랄(사우디아라비아)이 참가했다.

네 팀은 아시아를 대표한다는 자긍심과 함께 대회에 뛰어들이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F조에 속한 울산은 1차전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마멜로디 사운드스에 0-1 패배, 2차전에서 브라질의 플루미넨시에 2-4 패배를 당했다.

마멜로디전은 경기 직전 낙뢰 위험으로 킥오프가 한 시간가량 지연되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패배했다.

플루미넨시전은 선제 실점 이후 이진현 동점골과 엄원상 역전골로 한때 앞서갔으나 끝내 역전패를 당했다.

김관중 감독은 기존 포백에서 스리백으로 변칙 전술을 가하는 등 개편된 클럽월드컵에서 역사적인 16강 진출을 꿈꿨으나 수포가 됐다.

E조에서 경쟁한 우라와는 1차전에서 아르헨티나의 리버 플레이트(1-3 패), 2차전에서 이탈리아 명문 인터밀란(1-2 패)에 무릎을 꿇었다.

특히 인터밀란전에선 와타나베 료마의 선제골로 앞서간 뒤 오랜 시간

리드를 지켰지만, 경기 막판 동점골과 역전골로 고개를 숙였다.

G조의 알아인은 이탈리아의 유벤투스(0-5 패), 잉글랜드의 맨체스터 시티(0-6 패)에 연달아 참패했다.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박용우가 두 경기 연속 선발로 출전했지만 무득점 다실점 완패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울산, 우라와, 알아인은 두 경기 연속 승리를 놓치며 클럽월드컵 조별리그 조기 탈락의 굴욕을 당했다.

그나마 알힐랄이 H조에서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1-1 무),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0-0 무)의 덜미를 잡아 16강 진출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다.

알힐랄은 세르게이 밀린코비치비치, 후벵 네베스, 칼리드 쿨리발리, 헤당 로디, 주앙 칸셀루, 야신 부누 등 과거 유럽 무대를 수놓았던 선수들로 구성된 ‘탈아시아급 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알힐랄도 울산, 우라와, 알아인과 더불어 승전고를 울리지 못한 건 마찬가지다.

결국 아시아 클럽들은 약팀이라는 평가를 뒤엎지 못하며 세계 축구의 벽을 실감했다. 네 팀은 조별리그 최종 3차전에서 유종의 미를 노린다.

울산은 독일의 도르트문트, 우라와는 멕시코의 몬테레이, 알아인은 모로코의 카시블랑카와 맞붙는다. /뉴시스

‘17m13’ 김장우, 16년 만에 남자 세단뛰기 한국 신기록

고승환, 남자 육상 200m 20초45… 한국 기록에 0.05초 차

김장우(국군체육부대)가 16년 만에 육상 남자 세단뛰기 한국 신기록을 작성했다.

김장우는 23일 강원 정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79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세단뛰기 경기에서 17m13을 기록했다.

이로써 2009년 6월 김택현이 세웠던 17m10을 3cm 넘어 한국 기록을 다시 썼다.

김장우는 이날 5차 시기에 16m92를 뛰어 개인 최고 기록(중전 16m85)을 작성했다.

이어 마지막 6차 시기에 한국 신기록을 달성했다.

경기 종료 후 김장우는 “한국신기록을 경신하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달렸던 것 같다. 후배들에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 너무 뿌듯하고 더욱 노력해서 다 같이 기록 경신을 해 나가면 좋겠다”라며 “도쿄 세계선수권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랭킹이 아닌 기준기록(17m22) 통과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해 보겠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김종일 수석 도약 국가대표 총감독은 “오늘 날씨와 바람 여건이 좋아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 기쁘다”며 “김장우와 유규민이 함께 도쿄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획득해 우리나라 세단뛰기가 세계무대에서도 활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장우는 “오늘 날씨와 바람 여건이 좋아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 기쁘다”며 “김장우와 유규민이 함께 도쿄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획득해 우리나라 세단뛰기가 세계무대에서도 활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장우는 “오늘 날씨와 바람 여건이 좋아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 기쁘다”며 “김장우와 유규민이 함께 도쿄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획득해 우리나라 세단뛰기가 세계무대에서도 활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장우는 “오늘 날씨와 바람 여건이 좋아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 기쁘다”며 “김장우와 유규민이 함께 도쿄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획득해 우리나라 세단뛰기가 세계무대에서도 활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장우는 “오늘 날씨와 바람 여건이 좋아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 기쁘다”며 “김장우와 유규민이 함께 도쿄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획득해 우리나라 세단뛰기가 세계무대에서도 활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장우는 “오늘 날씨와 바람 여건이 좋아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 기쁘다”며 “김장우와 유규민이 함께 도쿄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획득해 우리나라 세단뛰기가 세계무대에서도 활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장우는 “오늘 날씨와 바람 여건이 좋아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 기쁘다”며 “김장우와 유규민이 함께 도쿄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획득해 우리나라 세단뛰기가 세계무대에서도 활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장우는 “오늘 날씨와 바람 여건이 좋아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 기쁘다”며 “김장우와 유규민이 함께 도쿄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획득해 우리나라 세단뛰기가 세계무대에서도 활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장우는 “오늘 날씨와 바람 여건이 좋아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 기쁘다”며 “김장우와 유규민이 함께 도쿄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획득해 우리나라 세단뛰기가 세계무대에서도 활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유규민(용인시청)은 16m70으로 2위에 올랐다.

고승환은 남자 200m 준결선에서 20초45의 기록으로 전체 1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20초45는 지난해 6월26일 전국선수권에서 작성한 20초49를 0.04초 당긴 고승환의 최고 기록이다.

박태건이 2018년 6월 세운 남자 200m 한국 기록(20초40)과는 0.05초 차이다.

한국 역대 2위는 장재근 전 인천선수촌장이 1985년 9월 작성한 20초41이다.

역대 3위 기록에 오른 고승환은 24일 결선에서 한국 기록 경신에 도전한다.

김소은(가평군청)은 여자 200m 결선에서 23초93의 대회 신기록으로 우승했다. 한국 여자 역대 4위 기록에 해당한다.

2위(24초19)는 신현진(포항시청)이고, 3위(24초45)는 김소은의 쌍둥이 자매 김다은(가평군청)이다.

전날 여자 100m에서 11초79의 개인 최고 기록으로 우승한 김소은은 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김장우는 “오늘 날씨와 바람 여건이 좋아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 기쁘다”며 “김장우와 유규민이 함께 도쿄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획득해 우리나라 세단뛰기가 세계무대에서도 활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장우는 “오늘 날씨와 바람 여건이 좋아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 기쁘다”며 “김장우와 유규민이 함께 도쿄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획득해 우리나라 세단뛰기가 세계무대에서도 활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장우는 “오늘 날씨와 바람 여건이 좋아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 기쁘다”며 “김장우와 유규민이 함께 도쿄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획득해 우리나라 세단뛰기가 세계무대에서도 활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장우는 “오늘 날씨와 바람 여건이 좋아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 기쁘다”며 “김장우와 유규민이 함께 도쿄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획득해 우리나라 세단뛰기가 세계무대에서도 활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장우는 “오늘 날씨와 바람 여건이 좋아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 기쁘다”며 “김장우와 유규민이 함께 도쿄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획득해 우리나라 세단뛰기가 세계무대에서도 활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장우는 “오늘 날씨와 바람 여건이 좋아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 기쁘다”며 “김장우와 유규민이 함께 도쿄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획득해 우리나라 세단뛰기가 세계무대에서도 활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장우는 “오늘 날씨와 바람 여건이 좋아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 기쁘다”며 “김장우와 유규민이 함께 도쿄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획득해 우리나라 세단뛰기가 세계무대에서도 활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암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南向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키치스테이션 전 탁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종의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세형 운암 3단지 재건축특수사업조합 | 세영 GS건설 | (주)한화/건설 | HDC 현대산업개발

강진군, 제67회 전국 중·고등학교 검도대회 개최

스포츠+반값여행 효과 기대 ‘스포츠메카’ 입지 다져

강진군이 오는 2025년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2025 제67회 춘계 전국 중·고등학교 검도대회’를 강진군 제2다목적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한국중·고등학교검도연맹이 주관하며, 전국 중·고등학교 110개 팀(중등부 66개, 고등부 44개) 선수 1,000명, 관계자 약 300여 명, 총 1,300여 명이 강진

을 찾을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관내 숙박시설을 이용하며 4일간 체류해 전체 체류 인원은 약 5,200명으로 추산된다. 군은 이번 대회를 통해 약 4억 9,600만 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숙박·음식·관광 등 지역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본 대회는 당초 경북 청송군에서 개최

될 예정이었으나, 산발 피해로 개최가 무산돼 강진군이 발 빠르게 유치를 나선 결과, 전국단위 청소년 스포츠 대회의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검도대회 유치는 강진군의 스포츠 인프라와 대회 유치 역량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대회 준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참가자 모두가 만족하고, 지역경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